

교회 소식

- 선교사님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성창현 집사 (시 22:23-31)
- 친교: TBA

예배 안내

- **주일예배:** 1:30pm, YouTube
- **English Service:** 12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pm, YouTube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10am, Zoom
-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12pm, Zoom
- 주일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17 3134 4066 (Sunday School)
939 020 5125 (EM/Youth)

성경 공부 및 모임

- **역사서와 선지서 성경공부:** 수요일 8pm, Zoom
- **중 · 고등부 성경공부:** 금요일, 8pm, Zoom
- **구역모임:** TBA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1권 8호

2021년 2월 21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위부터 안상민, 이영미, 임대영 집사)

교회 연락처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Podcast: 뉴욕세광고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뉴욕세광고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Judges 2:6-11** ----- Leader

Sermon ----- **“Our Responsibility
to Our Community”** ----- Pastor Kim

Reflection Prayer----- 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인도자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32(48) “만유의 주재”-----다함께
Hymn

대표기도 ----- 시 25:1-10 -----석동훈 집사
Prayer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마태복음 17:22-27**-----인도자
Word of God

설교 -----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 569(442)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함께
Hymn

축도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지난 주 설교 말씀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마태복음 17:14-21

산 위에서는 독생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셨을 때 산 아래에의 아들은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세 제자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나머지 아홉 명은 아들을 고치지 못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책망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있기에 어긋났다 하시는 겁니다. 영광은 산 위에서, 세 제자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 얼마든지 임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과 돌아섬이 없고, 깨달았다 하면서 기록의 능력을 잃은 산 아래의 가난한 형편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부흥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것은,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전에 귀신을 쫓았던 권능의 경험을 의지하다가, 열두명 중 하나라는 특권을 믿다가 (혹은 세 명에 끼지 못했다고 원망하다가) 낭패했습니다.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사랑에서 그 영광은 완성되었습니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 까지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갈 때 주님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이란 우선 우리가 믿는 바 진리를 의미합니다. 알려주신 진리를 믿어야지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우리를 위해 산을 이리저리 옮겨 땅을 넓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천지와 산과 바다를 만드신 주님, 다시 오실 때 산과 계곡을 평평케 하실 주님이십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와 우리의 판단보다 크고 깊고 영원한 주님의 능력과 지혜, 그 계획과 약속을 믿는 것이므로 훈련과 충성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야 천사들이 더 잘 알지만, 믿음은 미련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의 영적인 지식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믿음에는 결국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능케 하신 창시자이면서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와 금식의 때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은혜와 행복을 소망하며 세상의 부와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뢰하여 신실함을 지킬 믿음의 때입니다.